[월간 고용시장 모니터]
2010년 10월 고용시장 분석

2010.11.12 | 김수현_새사연 연구원 | sida7@saesayon.org

목 차

1. 2010년 10월 주요 고용동향

2. 노동양극화 심화

3. 계속되는 청년층 고용문제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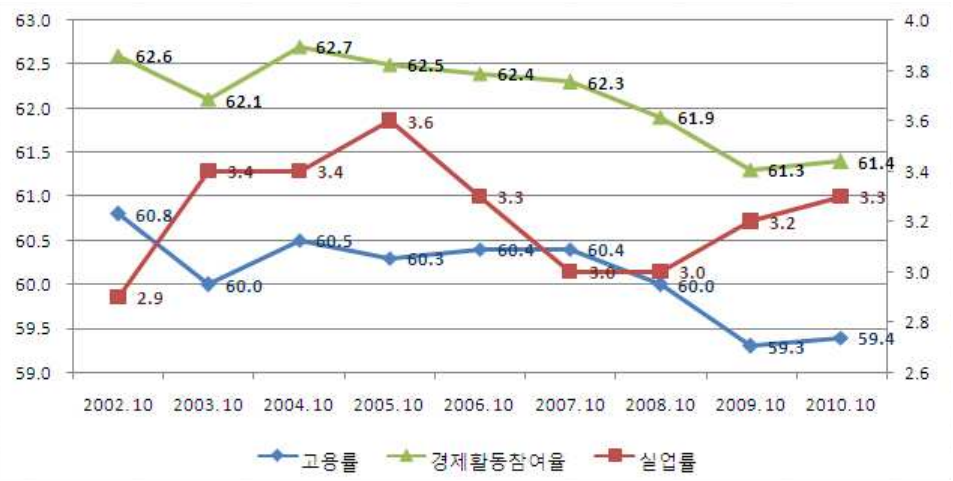
http://saesayon.org

요 약

□ 2010년 10월 주요 고용동향

- 2010년 10월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은 각각 59.4%, 61.4%, 3.3%로 전년동월대비 0.1%p 씩 상승
- 전반적으로 전년동월보다는 고용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할 때 여전히 고용지표가 회복되지 않았음([그림 1] 참조)
- 취업자 수는 2,417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1만 6천명 증가
- 제조업, 보건및사회복지, 건설업 등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 도소매·음식숙박업, 농림어업을 제외한 전산업에서 취업자 증가추세가 이어짐
- 제조업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의 취업자 수를 넘어섬
-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의 경우 계속 취업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는데, 이는 작년에 비해 희망근로 등과 같은 정부고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임
- 하지만 그럼에도 금융위기 전과 비교하면 20만명 정도 더 많은 것으로 계약형태에 따라 작년 연말과 같은 대량 실업자를 발생시킬 수도 있음
- 비경제활동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실업상태의 사람들이 구직을 포기하고 가사나 육아 등 가구 내 노동을 담당하거나 학교, 학원에서 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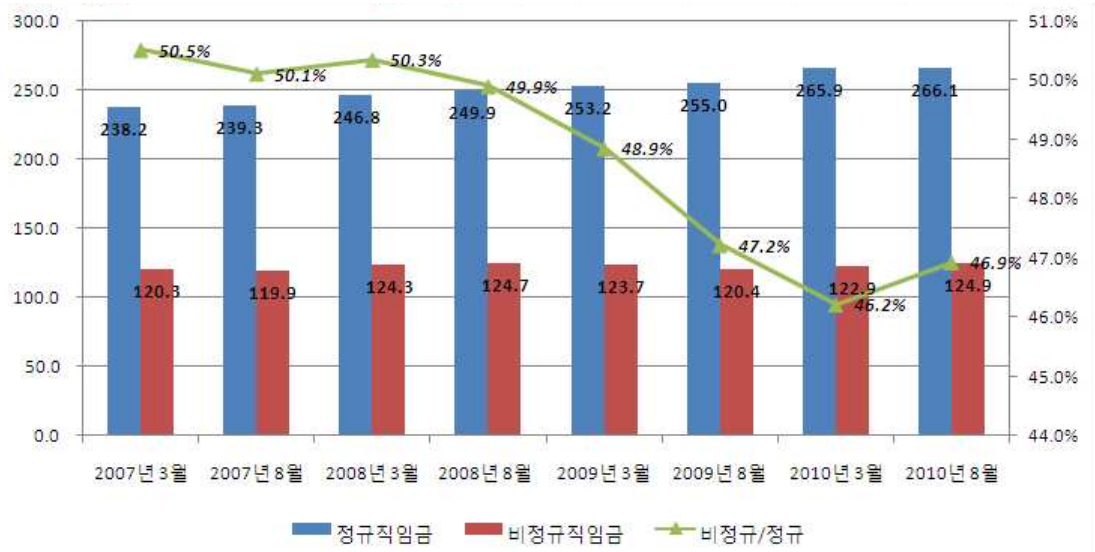
[그림 1]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단위 : %)



□ 노동양극화의 심화

-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고용이 회복되는 가운데 고용에 질에 대한 정부의 관심 필요
-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대비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을 감수하고 있으며, 직장으로부터 받는 사회보장서비스에서도 제외됨
- 2010년 8월 현재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에 대해 통계청은 33.3%,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50.4%,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50.2%라 발표
- 이는 비정규직 개념과 집계방식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통계청은 고용형태에 의해서만 비정규직을 정의하는 반면, 한국노동사회연구소나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고용형태와 고용지위를 모두 반영해 비정규직을 정의함
- 비정규직 노동자는 주로 여성과 저연령층, 고연령층에 집중되어 있음
- 이들 비정규직의 임금은 금융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더욱 낮아져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도 되지 않으며([그림 2] 참조), 정규직의 대부분이 직장으로부터 제공받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직장으로부터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이런 노동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필요

[그림 2]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비교 (단위 : 만원, %)



□ 계속되는 청년층 고용문제

- 청년층 고용지표의 악화가 뚜렷하게 나타남
-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청년층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며, 일자리를 가진 청년층의 비중 역시 줄어들고 있음
- 일자리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음

- 심각한 청년층 고용문제는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청년층 워킹 푸어 증가를 가져옴
- 또한 결혼이나 출산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경제활동인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게 됨
- 그러므로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
- 청년고용할당제, 정규직 일자리의 확대, 교육훈련과 연계한 실업정책 등 청년층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고, 그들의 그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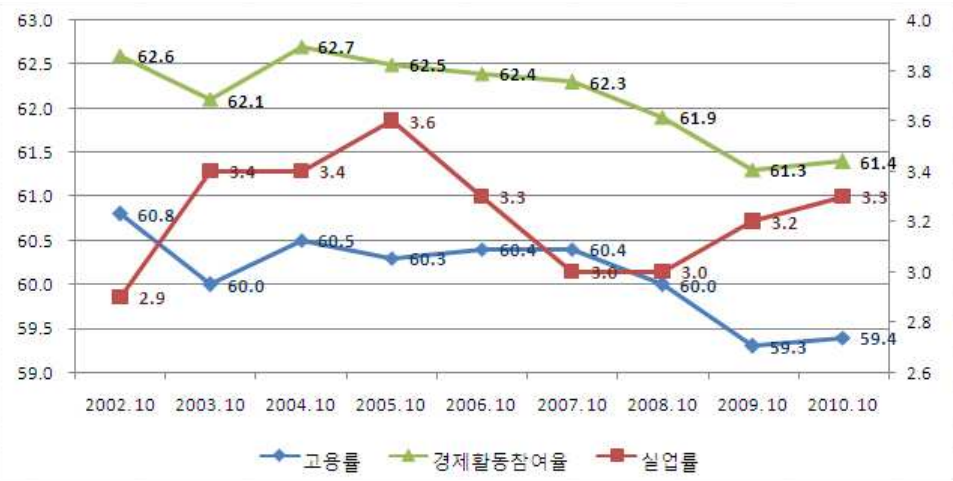
본문

1. 2010년 10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그림 1] 참조)

- 통계청의 고용동향 발표에 따르면, 2010년 10월 고용률은 59.4%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실업률은 3.3%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1.4%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전년동월보다는 전반적으로 고용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할 때 여전히 고용지표가 회복되지 않았음
-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각 해의 10월을 비교했을 때, 2009년과 2010년만이 고용률이 60%가 되지 않음
- 지난 9월과 비교할 경우, 고용률은 0.3%p 상승, 실업률은 0.1%p 하락, 경제활동참가율은 0.1%p 상승

[그림 1]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단위 : %)



※ 고용률, 경제화동참가율은 좌측 축 참조, 실업률은 우측 축 참조

□ 취업자

- 취업자는 2,417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1만 6천명 증가
-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가 다시 30만명 이상으로 복귀(9월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 증가는 24만 9천명이었음)

- 제조업(24만 1천명), 보건및사회복지(15만 8천명), 건설업(9만 4천명) 등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20만 7천명), 도소매·음식숙박업(-5만 9천명), 농림어업(-5만 5천명)을 제외한 전산업에서 취업자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음
- 특히, 원화가치 하락을 바탕으로 한 수출호황을 기반으로 하는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가가 중요한 역할을 함([그림 2] 참조)
- 반면,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의 경우 계속해서 취업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작년과 비교할 때 희망근로 등과 같은 정부고용의 규모가 작아졌기 때문으로 보임([그림 2] 참조)
- 하지만 지금의 고용규모도 금융위기 전과 비교하면 20만명 정도 더 많은 것으로 계약형태에 따라 향후 작년 연말과 같은 대량의 실업자를 발생시킬 수도 있음
- 도소매업의 경우 9월에 비해서는 취업자 수가 증가했으나, 전년동월에 비해 취업자 수가 감소했으며,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그림 2] 참조)

[그림 2]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복지행정 취업자 추이

※ 왼쪽 상단 그래프부터 시계방향으로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복지행정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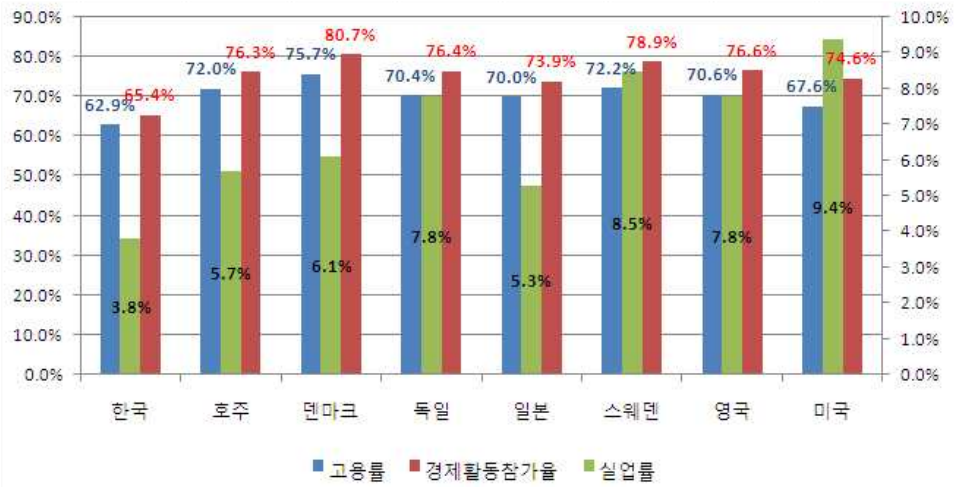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실업자는 83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3천명 증가
-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요원 채용예정자 등 일시적 요인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통

계청은 분석하고 있음

- 비경제활동인구는 가사(23만 4천명) 등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13만명(0.8%) 증가
- 구직단념자는 20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 5천명 증가하였고, 취업준비자 역시 61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8천명 증가
-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고용률이 낮은 동시에 실업률 역시 낮음 ([그림3] 참조)
- 이는 실업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며 계속해서 실업상태, 경제활동인구로 남아 있기보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을 단념하고 가사나 육아 등 가구 내 노동을 담당하거나 학교, 학원에서 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그림 3] 2009년 OECD 주요 국가의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 OECD (2010) Employment Oulook 참조

2. 노동양극화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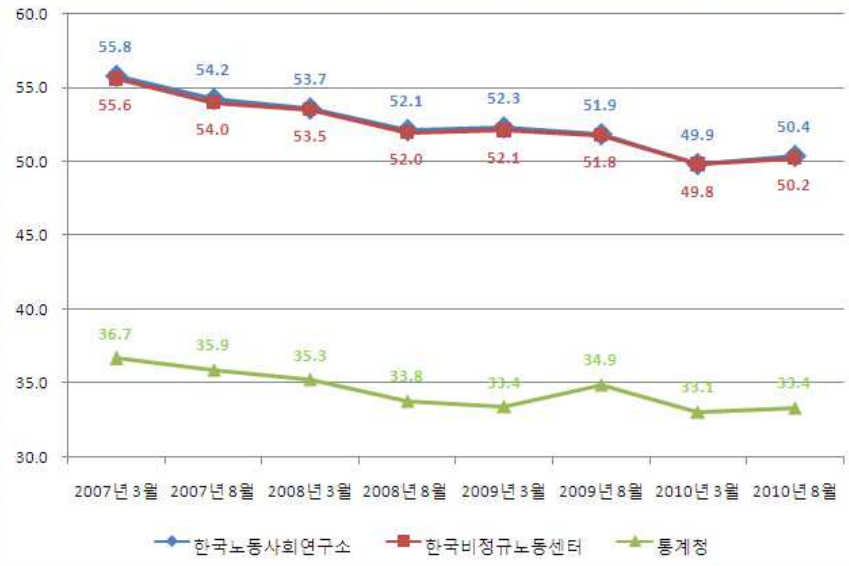
□ 고용의 질, 노동양극화 문제 대두

-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고용이 회복되어 가는 가운데 고용의 양만이 아니라 고용의 질에 있어서도 정부는 관심을 가져야 함
- 비정규직 일자리의 경우 고용의 질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 이들은 정규직 대비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정을 감수하고 있으며, 직장으로부터 받는 사회보장서비스에서도 제외됨
- 이는 노동양극화의 심화라는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 2010년 8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이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를 측정
- 통계청의 경우 전체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3.3%라 발표
- 이에 반해,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50.4%,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50.2%라 발표함 ([그림 4] 참조)
- 대체로 정부와 경영계는 통계청의 발표를 따르는 반면, 노동계의 경우 한국노동사회연구소나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비정규직 규모를 사용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동일한 자료를 기초로 비정규직 규모를 계산하고 있음에도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비정규직 개념과 집계방식이 다르기 때문
- 통계청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하고 있는데, ① 한시적 근로자 ② 시간제 근로자 ③ 비전형근로자를 비정규직 노동자로 보고 집계함[1)]
- 이에 따르면 고용지위 상으로 상용직이 아닌 임시직이나 일용직에 해당하는 상당수의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으로 포함되지 않음
- 한국노동사회연구소나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경우 고용지위에 고용형태를 더해 비정규직의 규모를 파악하고 있음[2)]
- 이하에서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비정규직 개념을 통해 비정규직을 분석함

[그림 4]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 (단위 : %)



1)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표 1] 참조

2)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김유선 (2010) 비정규직의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0. 8) 결과"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0) 201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분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집계 방식" 참조

□ 비정규직 노동자의 특성

- 여성노동자의 경우 남성보다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더 많음
- 남성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40.8%인데 반해, 여성임금노동자의 경우 63.4%가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음
- 비정규직 노동자 내에서도 남성보다 여성의 비중이 더 큼(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중 53.6%가 여성)
- 청년층과 중고령층의 경우 비정규직의 비중이 더 큼([그림 5] 참조)
- 30대와 40대를 제외한 다른 연령대의 경우 임금노동자 중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음

[그림 5] 연령대별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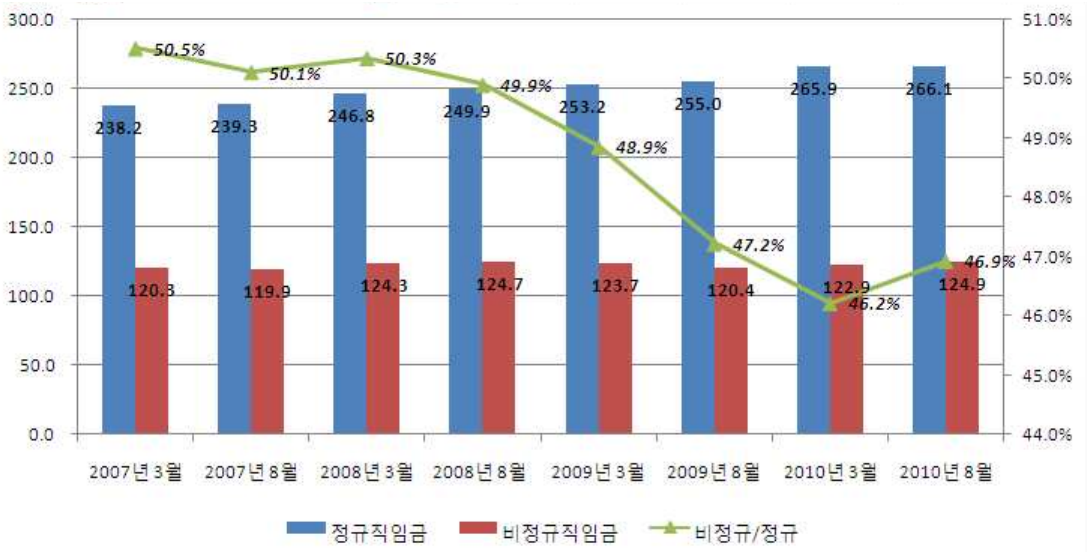
□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양극화 심화

-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정성과 함께 낮은 임금을 감수하고 있으며, 직장으로부터 사회보장도 받지 못함
- 2010년 8월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124만 9천원으로 정규직 평균임금 266만 1천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 46.9% 수준
-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임금격차가 더욱 증가([그림 6] 참조)
- 비정규직의 임금은 증가폭이 크지 않고 심지어 줄어드는 경우도 있었으나, 정규직 임금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함
- 임금, 노동소득에 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 양극화가 심화됨
-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직장으로부터 4대 보험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건강보험의 경우 정규직의 98.8%가 직장으로부터 제공받는 반면, 비정규직의 경

우 35.8%만이 직장으로부터 이를 제공받고 있음([그림 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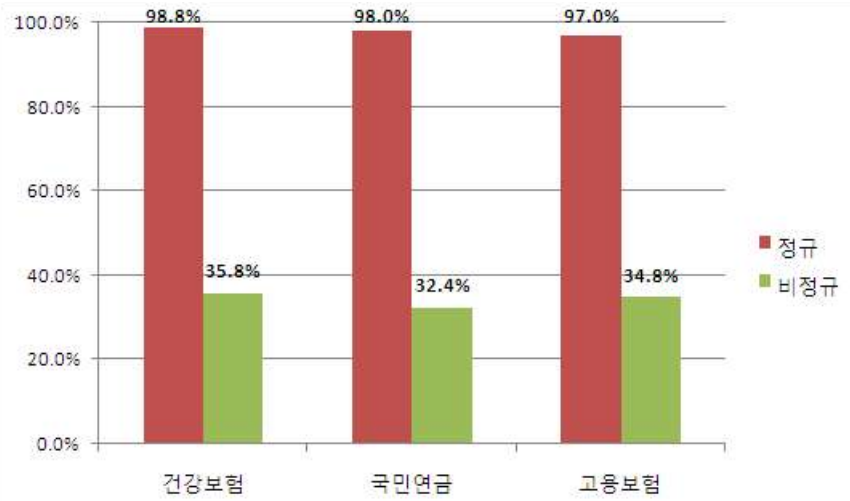
-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경우 역시 정규직은 95% 이상이 직장으로부터 제공받고 있으나, 비정규직의 경우 35% 이하만 직장으로부터 제공받고 있음([그림 7] 참조)
- 임금이나 노동환경에 있어 정규직, 비정규직 사이 노동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처우 개선, 최저임금의 상향과 최저임금제의 엄격한 실행 등 노동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필요

[그림 6]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비교 (단위 : 만원, %)



※ 임금의 경우 좌측 축 참조,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의 비중은 우측 축 참조

[그림 7] 사회보장서비스의 직장 제공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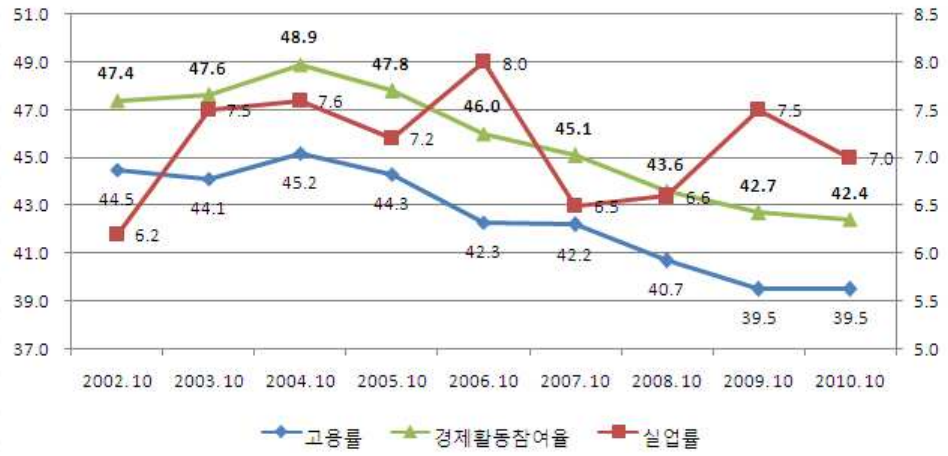


3. 계속되는 청년층 고용문제

□ 청년층 고용지표 악화 뚜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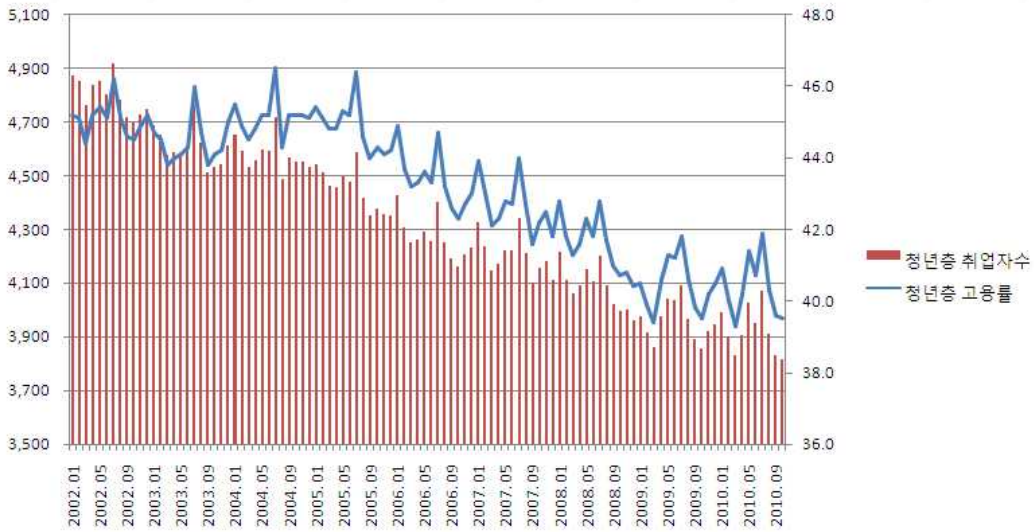
- 청년층 고용지표의 악화가 뚜렷하게 나타남
-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청년층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며, 일자리를 가진 청년층의 비중 역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음([그림 8] 참조)
- 청년층 취업자 수도 계속 감소해왔으며, 고용률의 경우 경제위기 이 후 40% 이하를 기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그림 9] 참조)

[그림 8] 청년층 주요 고용지표 변동 추이 (단위 : %)



※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은 좌측 축 참조, 실업률은 우측 축 참조

[그림 9] 청년층 취업자 수와 고용률 변동 추이 (단위 : 천명, %)



※ 청년층 취업자수는 우측 축 참조, 고용률은 좌측 축 참조

□ **청년층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

- 청년층은 일자리를 가진 사람의 수도 적으며, 일하는 노동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도 다른 연령대보다 더 많음
- 심각한 청년층 고용문제는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청년층 워킹 푸어 증가를 가져옴
- 또한 결혼이나 출산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경제활동인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게 됨
- 그러므로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함
-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청년인턴제를 대신해, 청년고용할당제, 정규직 일자리의 확대, 교육훈련과 연계한 실업정책 등 청년층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고, 그들의 그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함

참고문헌

김유선 (2010) 비정규직의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0. 8) 결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0) 201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분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집계 방식" 참조

[부표 1] 비정규직의 분류 및 정의

구 분	정 의
<비정규 근로자>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① 한시적 근로자 ② 시간제 근로자 ③ 비전형근로자 등으로 분류된다.
◦ 한시적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가 해당됨
- 비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계약만료, 일의 완료, 이전 근무자 복귀, 계절근무 등)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
◦ 시간제 근로자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됨
※ 전일제 근로자	직장(일)에서 정한 소정의 근로시간대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정산근로시간 동안 근로하는 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됨
◦ 비전형 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내(재택, 가내)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
- 파견근로자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다라 사용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 사업주를 위하여 근무하는 형태
- 용역근로자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이 업체의 지휘 하에 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형태(예 : 청소용역, 경비용역업체 등에서 근무하는 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을 보유하지 않았으면서 비독립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다만 근로제공의 방법, 근로시간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하면서, 개인적으로 모집, 판매, 배달, 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을 한만큼 소득을 얻는 근무형태
- 가정내근로자	재택근모, 가내하청 등과 같이 사업체에서 마련해 준 공동 작업장이 아닌 가정 내에서 근무(작업)가 이루어지는 근무형태
- 일일(단기)근로자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고,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식 일하는 형태의 근로자

출처 : 노사정 위원회, 비정규근로자 대책 관련 노사정합의문(1차), 2007[3)]

3) 윤영애·천영민(2008)에서 재인용